

정국 돌파 필요한朴, 경제난 탈출 절실한金

남북해빙 손잡나

“성급한 판단 아직 일러 북측 태도 지켜봐야” 지적도

이명박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신년 초 해빙 분위기로 돌아선 것은 남북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꼭 막힌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 정국에서도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고 북측도 체제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동안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话면 남북 최고지도자의 만남이 옹고고 설긴 남북 간 장애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말을 되풀이해 왔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집권 중반이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해 통일에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이라는 대북구상이 가동되고 대북지원에 담은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구상 등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남북관계는 답보상황을 탈피하지 못한데 따른 초조함이 깔려있었다.

특히 ‘정유호 국정개입’ 문건 파문 등으로 떨어진 국정추진력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왔다.

실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는 작년 12월 29일 김양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남북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안했으며, 한반도 냉전종식과 분단 70년 역사마감, 실질적인 통일기반 구축 등을 담은 박 대통령의 신년사 메시지 등이 이어졌다.

북의 상황도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까지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에 비춰 이번에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시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은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은 가운데 전통적인 핵문제에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따른 외교무대에서의 고립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라는 시점은 남북관계 개선의 카드를 택해 이러한 고립무역을 탈피할 수 있는 호기로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남북 양측 정권 모두 집권 3~4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에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을 초청해 높은 상왕이어서 자연스럽게 만남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직접적인 대화 제의가 아닌 만큼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는 해석도 있어 향후 북측의 태도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일을 기원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미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 철조망에 실랑민들과 관광객들이 걸어들 통일 기원 메시지들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반기문, 압도적 1위

문재인·박원순 뒤이어



반기문 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017년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여야 후보군을 따돌리고 최고 4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여 19대 대선을 앞두고 최대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 리서치와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3.08%포인트)에서 2017년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반 사무총장은 38.7%를 기록,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9.8%), 박원순 서울시장 (7.4%),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4.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4.0%),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3.8%) 등이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24.4%로 역시 1위에 올랐다. 박원순 시장(12.0%), 문재인 의원(10.6%), 김문수 위원장(5.7%), 안철수 전 공동대표(5.3%), 김무성 대표(4.4%), 정몽준 전 대표(3.5%), 안희정 지사(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일보와 한국정당학회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0~2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5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2.3%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헌시기로는 43.2%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를 꼽았고, 30.9%는 차기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 쉬워질듯

황주홍 의원, 규제완화 특별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기업도시와 공익사업 개발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공유수면 매립지(간척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권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토지인 농지로 평가해 산정한 가격으로 사들인다.



황주홍 의원

그러나 매립지 준공검사 시에는 해당 매립지를 도사용지로 재평가해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매립공사에 소요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로 매입해야한다. 이 점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됐다.

이 개정안은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 기업도시 지정 당시 상태의 토지(농지)로 평가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경제적 부담감을 덜게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구역 지정 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해 20%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50% 이상을 지역발전시설 설치비용 부담하도록 해 제도 개선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기업도시의 발전 촉진에 위해 토지조성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유수면 매립지에 개발 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인 전남 서남권 발전을 책임지고 견인하는 미래성장 거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北 남북대화 언급 “환영”

천안함 희생자 관련 5·24조치 해제엔 이견

전향적 대화 의지를 직접적인 대화 제의로 구체화해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아주 좋은 일로 생각한다. (북측이) 모처럼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가 잘 수용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여사 측

관계자가 “새누리당에서 5·24조치 해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하니까 좋은 분위기가 될 듯하다”고 말하자 “5·24조치는 천안함 희생자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해제)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5·24조치의 선(先) 해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을 환

영한다”며 “특히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준 데 주목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꼭 막힌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발언이 실질적 대화로 이어져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이 타결되길 바라며, 한반도 평화에 큰 전기를 마련하도록 남북 당국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 신호로 본다. 작은 불씨라도 잘 살려서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36

결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진서안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선자들(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은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방배

대산프리모가발